<특 집 : 독서진흥 환경개선 및 진흥정책 모색>

독서진흥법안 추진 방향

김 재 윤 국회의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jayyun415@naver.com

1. 독서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독서는 즐거움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국가적으로 국제경쟁력의 기초라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사회적으로 독서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 증진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동 ·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받아 독서습관을 배양하고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도록 독서시설의 정비와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등 범국가적인 독서 진흥 활동이 절실하다.

또한 국민들이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균등할 기회를 보장하고 책 읽는 문화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의견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 독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거나 발의 준비중에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진흥 목적으로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내용 면에서 독서진흥관련 규정과 도서관 관련 규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서관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과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독서문화진흥법」(박형준의원 대표발의)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청소년독서진흥법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됐다.

이러한 분법의 추세 속에서 독서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 내용을 기존법에서 분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독서진흥을 규율하는 독서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2. 독서진흥법 제정의 큰 방향

국민 독서진흥의 큰 원칙과 정책 방향을 포괄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책 읽는 활동을 진흥코자 하는 정책은 독서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만, 독서시설이나 독서자료 등 외부환경뿐 아니라 독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독서문화 진흥시책을 펼 때 고려해야 할 이념과 원칙들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독서진흥의 기본 이념 및 주요 내용

가. 기본이념

국민이 독서를 통해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인격을 형성하며, 지식정보시대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획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생활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념과 원칙 명시, 국민의 독서 할 권리, 독서문화 진흥의 원칙, 개개인의 독서활동의 자주성의 원칙, 독서자료의 제공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의 원칙,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의 원칙, 독서환경 정비와 지원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 원칙과 이념에 따라 그 책무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독서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독서위원회는 국민독서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중장기 독서진흥 정책 방향 정립 및 개발, 독서진흥에 관한 연구 · 조사 및 지원, 독서 환경 개선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가독서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 교육 과정에 독서교육을 포함시키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과용 독서자료 발행 등의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한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간 오지, 낙도 등 독서시설이나 자료가 미흡한 독서 낙후 지역, 군부대, 교정시설 등 독서시설이나 독서자료 접근이 어려운 곳 등의 독서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독서력이 저하된 자와 저소득자 등에 대한 독서자료의 보급, 독서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 및 필요 경비 지원 등 특별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국제교류의 측면에서 인적 교류를 비롯하여 독서자료 및 정보의 교류, 독서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독서시설의 상호 개방, 독서 환경 실태 공동 조사 등이 포함된다.

가정의 경우,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 기회 등을 통해 부모의 독서 중요성의 이해 촉진, 어린이의 자주적인 독서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강구, 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의 독서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의 경우, 학교도서관 등의 여건 조성, 독서교육의 충실화, 학교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활동, 사서교사의 발령 촉진, 자원봉사자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직장의 경우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에 대한 시책, 직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내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과 공공도서관의 계획적인 설치, 공공도서관 자료의 충실화, 학교도서관 · 공공도서관 등의 협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국제교류의 측면에서는 독서활동 지원(특히 한국어 교육 등),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국제교류의 협력체계(체계적인 독서진흥정책 사례),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북 페어 등 국제 독서문화 교류의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도 독서진흥법과 청소년독서진흥법의 관계, 국가독서위원회의 위상, 독서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공 영역에서의 독서지도 전문 인력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독서진흥을 위한 제안 및 해외 사례

가. 나이 때에 맞는 수준별 독서진흥 정책 필요

어린이 독서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 유아를 위해서는 6개월~1년 단위로 '아기용 독서 프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돼 있고 도서관은 회원이 된 아기에게 생애 첫 책을 선물, 엄마들을 모아 자녀 독서지도 교육법을 가르친다. 미국도서관 시스템은 자연스레 학교로 연결, 초등학교도서관 환경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학년 때까지는 책을 읽는 듯, 노는 듯, 4학년부터는 스스로 책을 찾아 읽으며 그룹 토론과 리포트 작성을 병행하는 등 독서 수준을 높여서, 나이에 맞게 수준에 맞춰 독서의 수준을 높여 가는 것이다.

나. 출판 및 유통 시스템의 개선

국민들의 독서활동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양질의 책이 생산 · 유통되어야 하고, 시장의 질서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며 산업 내부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 조건을 만드는 것도 독서진흥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주요 국가의 독서진흥정책 사례

미 · 일, 법 제정해 '읽기' 강화하고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독서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독서 진흥 정책을 실시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 7월 문자활자문화진흥법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독서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 독서운동도 활발하다. 특히 학교에서 〈10분간 아침 독서운동〉을 전개해 2005년 8월까지 소학교 1만2923개교(57%), 중학교 5747개교(52%), 고교 1335개교(26%) 등 2만5개교 학생 742만명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98년 읽기진흥법을 제정하고 2002년 낙제학생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을 제정했다. 9100여 개에 이르는 공립학교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영어와 수학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뤄 학생들의 성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부실학교'에 주 정

부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외 독서진흥 정책으로는 저소득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나눠주는 북 퍼스트 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유명인들의 독서 독려 프로그램 활발, 공공도서관을 위한 기금 마련, 이를 위한 국가연구소에 관한 법 제정 및 지원이 활발하다.

영국의 경우 0~1세의 영아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북스타트 운동'으로 갓난 아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있다. 매년 65만 명의 신생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 교육 지침인 '내셔널 커리큘럼'도 읽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88년 독서진흥재단을 만들어 지속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린이 도서관, 브뢰이닝어 재단, 청소년부, 교육청 등이 참여해 좋은 책 선정과 책 읽어주는 대리부모들을 조직하고 교육한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에서는 21세기 스쿨 업그레이드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학교, 공부하는 국가'를 캐치프레이즈로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고, 필란드에서는 도서관에 오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이동도서관 버스 '북 모빌'을 운영하고 있다.